

외국인투자 유치: 서비스산업에서의 전략적 외국인투자 유치방안

李相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국제적 발전과 능동적인 대외경제외교의 추구를 뒷받침할 政策研究 수행을 목적으로 1990년 1월 17일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발족하였으며, 1992년 1월 地域研究를 주요 업무로 추가하였습니다.

본 연구원은 현재 40여 명의 박사급 연구진을 포함하여 70여 명의 연구원이 국제거시금융, 무역투자정책, 대외경제관계 및 APEC발전대책, 새로운 시장지역여건, 동북아경제협력 및 통일 관련 국제협력 등에 걸쳐 다각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원은 國際巨視金融室, 貿易投資政策室(DDA연구팀, FTA연구팀, APEC연구팀), 세계지역연구센터(중국팀, 일본팀, 유럽팀, 미주팀, 동서남아팀), 東北亞경제협력센터,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北京事務所와 워싱턴 소재 한국경제연구소(KEI)를 두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결과는 다양한 형태로 정부의 유관부처에 제공되며, 장·단기 研究報告書, 월간 『KIEP세계경제』, 반년간 『對外經濟研究』 등의 형태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새로운 발간물을 비롯한 각종 연구성과는 본 연구원 KIEP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iep.go.kr>)를 통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경제질서의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무대에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대외경제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내정책과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院長 安忠榮

對外經濟政策研究院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TEL : 02) 3460-1178, 1179 / FAX : 02) 3460-1144
URL : <http://www.kiep.go.kr>

동북아허브전략연구 04-03

외국인투자 유치: 서비스산업에서의 전략적 외국인투자 유치방안

李相學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서비스산업에서의 전략적 외국인투자 유치방안에 대하여 연구한다. 본 보고서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2장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서비스화 정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평가한다. 우리나라 경제의 서비스화가 고용, GDP 비중 등에서 진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연관관계도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의 서비스화 정도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다. 이는 우리 경제의 서비스화가 더욱 진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3장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역할과 동향을 분석한다. OECD 국가들은 대체로 직접투자의 잠재력도 크고 실적도 좋다. 우리나라는 직접투자의 잠재력은 크지만 상대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 세계적으로 2000년대 들어 다소 주춤하던 직접투자는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측된다. 3장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산업별 구성, 투자국별 구성 등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4장에서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방안을 살펴본다. 먼저 세부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요인을 분해하여 파악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를 세계 추세효과, 산업구성효과, 국가효과와 3개 요인별로 분해한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직접투자 유입은 세계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그동안 직접투자가 부진하였기 때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이용하고 기존 직접투자정책을 평가하여 향후 외국인직접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방향 등을 제시한다. 서비스산업의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타기팅 대상으로서 정책당사자, 유치지역, 유치대상산업, 투자국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바, 향후 서비스산업 직접투자 유치는 이와 같은 고려요소의 공통분모를 최대한 많이 가지고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차 례

국문요약	3
제1장 서론	11
제2장 경제의 서비스화	14
1. 서비스산업의 GDP 비중	15
2. 서비스산업의 고용	18
3.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연관관계	19
4. 경제의 서비스화 평가와 전망	20
제3장 외국인직접투자의 역할 및 추이	23
1. 외국인직접투자와 경제발전	23
가.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23
나. OECD 국가의 경우	24
다. FDI 성과지수와 잠재력지수	26
2. 외국인직접투자의 최근 동향	28
가. 세계 동향	28
나.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30

제4장 서비스산업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방안	38
1.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요인 분해	38
2.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추이	45
가. 유치정책의 변천과정	45
나. 외환위기 이후의 유치정책	47
다. 주요 지원제도	51
3. 정책방향과 과제	58
가. 일반적 논의	58
나. 기여도 높이는 정책방향	60
다. 서비스산업 타기팅	62
 제5장 결론	 65
 참고문헌	 66
 Executive Summary	 68

표 차례

표 2-1. 서비스산업의 업종별 GDP 비중	16
표 2-2. 서비스산업의 업종별 GDP 비중 추이	16
표 2-3. 서비스산업의 업종별 성장률 추이	17
표 2-4. 주요국 경제의 서비스산업 비중	17
표 2-5. 부문별 취업자비중 추이	18
표 2-6. 서비스산업의 업종별 취업자비중 추이	19
표 2-7. 부문별 중간투입에서의 서비스 투입비율	20
표 3-1. OECD 국가의 FDI 잔고 및 1인당 GDP	25
표 3-2.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의 잠재력과 실적 매트릭스(2000~02년)	27
표 3-3.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실적 및 잠재력의 세계순위	28
표 3-4.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유출입 추이	29
표 3-5. 외환위기 이후 연도별 외국인투자 현황	32
표 3-6. 2000년대 외국인직접투자의 국별 현황	33
표 3-7. 2000년대 외국인직접투자의 산업별 현황	34
표 3-8.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수도권 집중도(지방=1.0)	36
표 3-9. 서비스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집적지역	36
표 4-1. 산업별 직접투자 증가요인 분해(방법 1)	43
표 4-2. 산업별 직접투자 증가요인 분해(방법 2)	45
표 4-3. 외국인직접투자 정책기조의 추이	47
표 4-4.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48

표 4-5.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49
표 4-6. 조세감면대상기업	52
표 4-7. 조세감면내용	53
표 4-8. 관세 등의 감면 현황	54
표 4-9. 임대료의 감면내용	55
표 4-10. 현금지원 내역	56
표 4-11.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기준	57
표 4-12. 서비스산업 타기팅 기준	64



그림 차례

그림 3-1.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30

제1장 서론

우리나라 경제는 GDP와 고용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의 비중이 커지는 이른바 “경제의 서비스화”가 점차 진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화 경향은 명목가격 기준 통계에서는 GDP와 고용 모두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실질가격 기준 통계에서는 GDP보다는 고용 면에서 보다 뚜렷하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의 서비스화 정도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다. 이는 우리 경제의 서비스화가 더욱 진전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우리나라의 고용 및 산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의 비중은 앞으로 점차 커질 것이다. 이와 같은 경제의 서비스화에 대해 “제조업공동화”로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이를 경제발전의 추세로 인식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서비스산업의 고용흡수능력을 활용하고 제조업과의 연관관계를 심화시켜서 경제구조고도화를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비즈니스서비스 등 지식기반서비스의 역할이 중요하다. 서비스산업 중에서도 이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은 그 자체로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에 대한 중간투입으로서의 비중도 증가할 것이다.

사실 21세기는 지식이 경제활동과 경제성장의 핵심요소가 되는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 시대가 될 것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¹⁾ 선진국들의 경우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하면서 지식기반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산업들의 종사자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OECD는 새로운 기술의 R&D 또는 새로운 기술의 투입집약도가 높은 산업을 지식기반산업으로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 연구개발(R&D) 활동이 활발하거나, (2) 지식기반경제 대두의 배경이 되는 핵심기반기술로서의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1) 배광선 외(2000. 5), 『벤처기업의 발전전략』, 산업연구원 21세기 준비 연구보고서 시리즈 2000-16.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의 사용비중 또는 정보통신기술이 체화된 제품의 투입비중이 높거나, (3) 고속련인력(highly skilled workers)의 투입비중이 높은 산업을 지식기반산업으로 분류하였다.²⁾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은 지식의 창출, 가공, 활용 등의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하는바, 이와 같은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은 그 자체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확충시키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한다. 앞으로 비중이 더 커질 이 서비스산업의 공급능력을 확충하고 제조업 등과의 연관관계를 심화시켜 경제구조를 고도화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과제이다.

서비스산업의 공급능력 확충과 구조고도화를 위한 유력한 정책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는 것이다. 서비스산업에서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시장에 진입하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다. WTO의 출범 이후 서비스산업의 진입장벽이 완화되고 국가간 투자협정이 다수 체결되면서 서비스 관련 직접투자는 직접투자의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되었다. 특히 주요 선진국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면서 서비스산업의 직접투자는 제조업 등의 부문보다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외국인직접투자가 감소하는 추세에 들어서기는 했지만 최근의 추세는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UNCTAD는 예측하고 있다.³⁾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산업별 구성에서도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서비스산업의 공급능력을 확충하여 서비스의 질과 양을 확충시킬 뿐 아니라 제조업에 중간투입물로 투입되어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절한 투자유치전략 등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현 참여정부는 평

2) 강제형·이상학·정기웅(2002. 4), 「벤처기업간 연구개발 경합에 대한 연구」, 『벤처경영연구』 5권 1호에서 재인용.

3)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4*.

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현을 국정목표의 하나로 설정하였으며 금융 및 물류거점 구축, 전략적 외국인투자 유치, 역내 경제 및 에너지 협력 등의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⁴⁾ 이러한 맥락에서도 서비스산업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는 중요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한 서비스산업에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방안에 대하여 연구한다. 2장은 우리나라 경제의 서비스화 정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평가한다. 3장은 전 세계와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을 분석한다. 4장은 서비스 세부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요인을 분해하는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요인을 분해한다. 이를 통하여 향후 활발한 직접투자 유입이 기대되는 세부 서비스산업을 파악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이용하고 기존 정책을 평가하여 향후 외국인직접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방향 등을 제시한다. 본 연구결과는 참여정부의 동북아시대 구상의 실현방안과 적절히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4) 동북아시대위원회 홈페이지(www.nabh.go.kr)

제2장 경제의 서비스화

전 세계적으로 경제발전과 더불어 서비스부문이 고용, 산출, 최종수요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즉 각 산업에서 투입요소로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또한 소득증가에 기인하여 개인 및 사회서비스에 대한 최종수요가 증가한다. 이와 같은 현상을 통칭하여 “경제의 서비스화”라고 한다.⁵⁾ 이러한 경제의 서비스화 현상은 특히 선진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서비스부문이 국민총생산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높다. 개발도상국들의 경우에도 상당수 국가에서 서비스의 부가가치비중이 50%를 상회한다.

경제의 서비스화 단계는 지금까지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볼 때 크게 3 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Park and Chan 1989). 먼저 경제발전 초기에는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이주한 노동력을 도시 비공식부문 (informal sector)에서 흡수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서비스산업과 제조업간의 연관효과 및 개인 소득증가에 따른 서비스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서비스부문의 고용이 증가한다. 즉 서비스부문의 고용증대에 수요 측면이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제조업의 상대적 비중이 감소하고 서비스부문이 가장 중요한 고용부문으로 등장하며 이를 “탈공업화단계”로 지칭한다.

Colin Clark는 19세기 이후의 세계 각국의 산업구조와 소비구조를 분석하여 경제발전이 따라 산업구조의 중심이 1차산업에서 2차산업으로 그리고 다시 3차산업으로 이동한다고 주장하였다.⁶⁾ C. Clark의 주장은 주로

5) “경제의 서비스화”란 용어는 국민경제에서 서비스가 담당하는 역할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서비스의 비중이 계속 커지더라도 서비스와 제조업 등 타 산업과의 상호 연관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서비스의 상대적 비중만을 증시하는 것은 전체적인 경제구조를 이해하는 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이상학(1993. 1), 『서비스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대한상공회의소.

노동력의 산업간 이동에 근거한 것이며 3차산업(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 비하여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Hollis Chenery와 Simon Kuznets 등은 노동력 구성비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의 상승과 함께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지만 소득구성비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뚜렷한 증거는 없다고 주장하였다(유진수 1991). 한편 Werner Baer와 Larry Samuelson의 연구에서는 서비스산업의 구성비와 1인당 국민소득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1. 서비스산업의 GDP 비중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명목가격 기준 GDP 비중은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명목가격(당해연도 가격) 기준으로 본 서비스산업의 GDP 대비 비중은 1995년 46.7%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3년에는 50.5%를 기록하였다. 도소매음식숙박업은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반면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 등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불변가격 기준(2000년)으로 평가한 서비스산업의 GDP 비중은 1980년대 이후 2002년까지 약 50% 부근에서 매우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는 물류 및 정보배분과 관련된 운수창고통신과 금융 및 보험의 성장률이 높고 그에 따라 비중이 증가한 반면, 도소매업은 최근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의 비중은 비교적 일정하다.

6) 이를 일반적으로 Clark-Fisher 가설이라고 지칭한다. 여기에서 3차산업은 일반적인 서비스산업에 전기가스수도업을 더한 것이다.

표 2-1. 서비스산업의 업종별 GDP 비중

(단위: %)

	1995	1997	1999	2000	2001	2002	2003
서비스산업 전체	46.7	47.7	48.7	48.3	49.8	50.6	50.5
도소매음식숙박업	10.0	8.8	8.9	9.6	9.5	9.2	8.6
운수창고통신업	6.0	5.9	6.3	6.2	6.6	6.6	6.6
금융 및 보험	6.2	6.4	7.0	6.1	6.8	8.0	8.0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0.3	11.8	11.6	11.8	11.3	11.2	11.3
공공행정 등	4.8	5.0	5.2	5.0	5.2	5.2	5.4
교육서비스	4.5	4.7	4.6	4.4	4.6	4.7	5.0
보건 및 사회복지	1.7	1.9	2.2	2.2	2.7	2.5	2.6
기타 서비스	3.1	3.1	3.0	3.0	3.0	3.1	3.1
제조업	24.9	23.5	25.1	26.1	24.4	23.7	23.4

주: 당해연도 가격 기준.

자료: 한국은행(2004. 4), 『조사통계월보』.

표 2-2. 서비스산업의 업종별 GDP 비중 추이

(단위: %)

	1995	1997	1999	2000	2001	2002	2003
서비스산업 전체	49.4	49.2	49.4	48.3	48.8	49.2	48.6
도소매음식숙박업	9.9	9.6	9.6	9.6	9.7	9.5	9.0
운수창고통신업	4.8	5.2	5.7	6.2	6.9	7.1	7.1
금융 및 보험	6.8	6.7	6.5	6.1	6.4	7.3	7.2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1.7	12.0	12.0	11.8	11.4	11.2	11.1
공공행정 등	5.5	5.3	5.4	5.0	4.4	4.7	4.7
교육서비스	5.1	4.8	4.7	4.4	4.5	4.4	4.4
보건 및 사회복지	2.5	2.5	2.4	2.2	2.0	2.0	2.0
기타 서비스	3.0	3.0	2.4	2.2	2.0	2.0	3.0
제조업	22.1	22.0	24.2	26.1	25.7	25.9	26.3

주: 2000년 가격 기준.

자료: 한국은행(2004. 4), 『조사통계월보』.

불변가격 기준으로 보면, 즉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경제의 서비스화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명목 GDP의 산업별 구성에서 나타나는 “경제의 서비스화” 현상은 서비스의 가격상승률이 제

조업제품보다 높은 데에 기인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서비스산업의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상승률은 서비스산업의 낮은 노동생산성과 높은 단위노동비용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2-3. 서비스산업의 업종별 성장률 추이

(단위: %)

	1971~80	1981~90	1991~95	1996~2000	2001~02	1971~2002
서비스산업 전체	6.5	8.3	7.7	4.7	5.9	6.9
도소매업	8.3	10.5	6.7	4.5	4.2	7.9
음식숙박업	4.8	7.9	8.3	4.1	6.8	6.3
운수창고통신	13.2	8.2	8.3	10.9	8.9	10.2
금융 및 보험	19.9	15.3	14.6	4.4	10.4	14.5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6.6	9.1	8.8	4.1	4.6	7.2
교육 및 연구	6.0	15.9	13.8	2.0	7.4	9.7
의료 및 보건	10.3	19.3	7.3	2.0	-0.7	10.5
기타 서비스	3.9	4.7	4.4	2.2	3.8	4.0
제조업	15.6	11.2	8.4	8.1	4.2	11.2
GDP	7.4	8.8	7.5	5.0	4.9	7.3

주: 실질부가가치 기준, 연평균.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호. 산업연구원(2003. 10)에서 재인용.

표 2-4. 주요국 경제의 서비스산업 비중

(단위: %)

	GDP 비중	고용비중
프랑스	72.5	73.6
독일	69.7	69.0
이탈리아	69.5	65.8
일본	69.2	64.7
네덜란드	71.4	76.8
영국	72.6	79.2
미국	77.2	78.8
한국	49.8	62.9

주: 2001년 기준.

자료: OECD(2003),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통계청 홈페이지(kosis.nso.go.kr).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자면 우리나라 경제의 서비스화 정도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서비스부문이 경제의 60% 이상을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국가에서는 70%를 상회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경제의 서비스화 정도가 이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향후 크게 높아질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서비스산업의 고용

실질 GDP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경제의 서비스화 현상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데 비해 고용 면에서의 서비스화는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이 분명히 드러난다. 서비스산업의 취업자비중은 1980년 37.0%에서 2003년 63.9%로 크게 증가하였다. 서비스산업의 취업자 수는 1980년 이후 200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제조업 및 전 산업의 취업자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고용 면에서의 서비스화 정도는 주요 OECD 국가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표 2-5. 부문별 취업자비중 추이

(단위: %)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제조업	21.6	23.4	27.2	23.6	20.3	19.8	19.1	19.0
서비스업	37.0	44.3	46.7	54.8	61.5	62.9	63.6	63.9
기타 산업	41.4	32.3	26.2	21.6	18.2	17.4	17.3	17.1
전 산업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kosis.nso.go.kr)

주요 서비스업종별로 취업자비중을 보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비중이 2003년 현재 각각 17.5%와 8.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도소매업과 금융 및 보험의 고용비중은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운수창고통신, 교육 및 연구, 의료 및 보건의 고용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2-6. 서비스산업의 업종별 취업자비중 추이

(단위: %)

	1993	1995	1997	1999	2000	2001	2002	2003
서비스산업 전체	52.5	54.8	57.8	61.2	61.5	62.9	63.6	63.9
도소매업	18.4	18.6	18.7	19.3	18.1	18.2	18.0	17.5
숙박음식업	7.0	7.9	9.0	8.9	9.1	9.0	9.1	8.9
운수창고통신	5.3	5.3	5.5	5.9	6.0	6.1	6.2	6.0
금융 및 보험	3.4	3.6	3.7	3.6	3.6	3.5	3.3	3.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3.8	4.5	5.4	5.9	6.4	7.1	7.5	7.8
교육 및 연구	5.0	5.0	5.3	5.6	5.6	5.7	6.0	6.7
의료 및 보건	1.5	1.5	1.6	1.9	2.0	2.2	2.5	2.4
기타 서비스	8.2	8.4	8.7	9.9	10.5	10.6	10.8	11.2
제조업	24.5	23.6	21.4	19.8	20.3	19.8	19.1	19.0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kosis.nso.go.kr)

3.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연관관계

서비스산업의 GDP 비중 및 고용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더하여 제조업부문에서 부가가치의 원천이 기존의 상품제조에서 서비스부문으로 변화하는 이른바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진전되고 있다. 예를 들자면 개인용 컴퓨터(PC) 업계에서는 조립과 가공부문보다 시제품 개발이나 판매, 애프터서비스부문의 수익성과 부가가치비중이 높아지는 이른바 스마일커브(smile curve)현상이 나타나고 있다.⁷⁾ 이와 같은 경향은 기업들이 핵심적

7) 스마일커브현상이란 제품생산단계를 수평축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타내고 부가가치 비중을 수직축에 나타낼 때 중간단계인 제조단계의 부가가치비중은 낮고 상품개발(초기) 및 판매, 애프터서비스(후기)의 비중은 높아서 이를 연결

인 업무에 집중하고 비핵심적인 업무나 부가가치비중이 낮은 업무는 외주를 이용하는 데에도 일부 기인한다. 통계적으로는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도 경영과 부가가치 창출의 중점을 제품개발, 판매 등으로 옮겨가면서 제조업내에서 서비스부문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조업의 서비스화 추세와 함께 제조업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서비스의 비중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제조업 중간투입에서 차지하는 서비스 투입의 비중은 1985년의 10.7%에서 2000년 14.2%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제조업의 서비스화 수준은 아직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표 2-7. 부문별 중간투입에서의 서비스 투입비율

(단위: %)

	1985	1990	1995	2000
전 산업	18.3	21.8	26.0	27.7
제조업	10.7	13.9	14.7	14.2
서비스	39.7	45.4	53.9	53.5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각호.

4. 경제의 서비스화 평가와 전망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서비스의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제조업의 명목비중이 감소하고 외국으로 나가는 해외직접투자(outbound FDI)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⁸⁾ 이에 따라 우리 경제의 탈공업화 또는 산업공동화를 우려하는 견해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 탈공업화(deindustrialization)는 선진국에서 먼저 발생한 경제현상으로서 제조업의

한 곡선이 U자 모양을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산업연구원(2004. 7. 30), 「서비스 경제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산업경제정보』 제216호.

8) 기업의 직접투자 중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직접투자는 외국인직접투자,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투자하는 경우는 해외직접투자로 부른다.

고용 및 부가가치비중이 감소하고 서비스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Park and Chan(1989) 연구에서의 서비스화 3단계에 해당한다. 탈공업화는 주로 제조업부문에서의 투자 및 생산 감소, 고용감소, 제조업부문의 무역수지 악화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데 영국의 경우는 광공업의 비중이 급격히 감소한 1970년대에, 미국의 경우는 1980년대 초기에 본격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최근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해외직접투자 유출의 급격한 증가와 제조업의 명목비중감소가 과연 탈공업화인지 아니면 경제발전단계상 자연스러운 현상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즉 탈공업화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있고 이를 경제구조의 성숙단계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는 시각도 공존한다. 일부에서는 고임금과 대립적인 노사관계 등 경영환경의 악화와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른 요소비용의 경쟁력 약화를 생산시설 해외이전(해외직접투자)의 주요 원인으로 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제조업공동화(製造業空洞化)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산업변화추이를 경제구조의 성숙단계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탈공업화 현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의 GDP 대비 생산 및 고용비중의 변화는 199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그 변화형태가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⁹⁾ 고용비중의 관점에서는 우리 경제의 탈공업화는 1990년대 초반부터 이미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표 5, 표 6 참고). 즉 고용부문에서 제조업의 비중은 1990년의 27.2%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3년에는 19.0%까지 감소하는 등 고용부문에서의 탈공업화는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상당한 정도 진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 GDP로 평가한 제조업비중은 199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3년에는 26.3%에 달하는 등 외환위기 이후 오히려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이

9) 오준병(2004. 7), 「한국경제의 산업구조 변화 요인 분석」, 『월간 KIET 산업경제』 33-42.

다. 이와 같이 고용과 생산부문의 변화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은 최근 제조업에서 경공업부문보다 정보통신산업 등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이다. 즉 정보통신산업 등은 부가가치 창출능력에 비해 고용흡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정도로 고용을 흡수하지 못하면서 제조업의 부가가치비중은 높아지지만 고용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질생산비중에서는 아직 탈공업화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역으로 향후 제조업의 실질생산 비중감소(탈공업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상당 기간 지속될 경제의 서비스화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경제의 서비스화가 제조업의 공동화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투입요소로서의 서비스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크게 높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서비스산업의 고용흡수능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시장개방과 서비스 직접투자의 증대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계기로 활용하고 불필요한 규제 등을 해소해 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제3장 외국인직접투자의 역할 및 추이

1. 외국인직접투자와 경제발전

가.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외국인직접투자는 투자유치국(host country) 경제에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친다.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는 크게 생산유발효과, 고용효과, 생산성향상효과와 기술이전효과로 구분된다.¹⁰⁾ 생산유발효과는 직접투자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요소들을 투자유치국으로 이전시킴에 따라 투자유치국의 생산능력을 확충시키는 효과를 의미한다. 직접투자는 해당 산업뿐 아니라 전후방 연쇄효과를 통하여 관련 산업의 생산성도 증가시킬 수 있다. 둘째, 고용효과는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고용의 창출을 의미한다. 신규로 투자가 발생하여 생산 및 관리인력 등을 채용하면 고용이 증가하며 전후방 연쇄효과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타 산업의 고용창출에도 기여한다. 셋째로 기술이전 및 생산성향상효과는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하여 첨단기술 및 경영기법 등이 전수되고 이는 기술수준의 전반적 향상을 유발하여 궁극적으로 투자유치국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이다. 이러한 세가지 효과에 더하여 무역 및 국제수지효과와 경쟁효과를 생각할 수 있다. 무역 측면에서는 수출 및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수출이 수입보다 더 증가하면 무역수지는 개선될 것이다. 직접투자로 유치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초반에는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오지만 점차 시장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 경쟁을 오히려 저해할 수도 있다. 이에 더하여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은 제한적 영업관행, 관측 등의 비가격경쟁, 핵심원자재의 독점 등

10) 연태훈(2003. 12), 『외국인직접투자의 산업간 생산성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2003-05, pp. 10~11.

을 통하여 독점력을 구축할 수도 있다.

외국인직접투자가 투자유치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투자유치국의 경제 상황과 경제정책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로서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투자기업의 국내경제기여도는 기술, 인적학습능력, 경제발전전략, 산업구조 등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동일지역에 대한 투자도 해당기업의 전략에 따라 기여도가 크게 차이가 난다.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는 데에만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은 미흡하며 투자유치 후에도 긍정적 효과를 확대하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정책의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직접투자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투자유치국의 경제상황보다는 모기업의 이익을 고려하여 투자와 고용을 결정하거나 자본유출입을 결정함에 따라 투자유치국 경제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경제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킬 수도 있다.

나. OECD 국가의 경우

<표 3-1>은 OECD국가들의 직접투자 잔고비중과 GDP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표 3-1>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FDI 잔고의 GDP 비중이 국별로 큰 편차가 있다는 사실이다. 직관적으로 대국일수록 직접투자 잔고의 비중이 작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경제의 선진화를 먼저 경험한 영국 등은 해외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진 결과로서 FDI 유출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표 3-1>에서 GDP 규모 상위 12개국의 FDI 유입/GDP 비율의 단순평균은 26.7%, 가중평균은 17.7%이며 GDP 규모 하위 16개국의 동 비율의 단순평균은 40.0%, 가중평균 41.2%로서 대체로 경제규모가 클수록 FDI 유입/GDP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FDI 유입/GDP 비중과 GDP 규모의 상관계수는 -0.27225로 계산되어서 약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GDP 규모 상위 12개국의 FDI 유출/GDP 비율의 단순평균은 30.8%, 가중평균은 22.8%이며 GDP 규모 하위 16개국의 동 비율

단순평균은 30.1%, 가중평균은 39.3%로 나타났다. FDI 유출/GDP 비율은 GDP 규모와의 상관계수가 -0.10636으로 나타났다.

표 3-1. OECD 국가의 FDI 잔고 및 1인당 GDP

국가	유입 FDI/GDP(%)	유출 FDI/GDP(%)	GDP (10억 달러)	1인당 GDP(달러)
스위스	44.2	113.3	312	37,400
일본	1.5	8.3	4301	31,200
덴마크	41.7	43.4	212	32,100
미국	12.9	14.4	10934	36,200
노르웨이	17.4	20.0	221	42,000
독일	22.7	29.0	2403	24,100
오스트리아	20.6	19.5	253	25,500
아이슬란드	10.0	12.3	11	29,500
벨기에/룩셈부르크	81.8	72.9	328	35,600
프랑스	28.2	45.8	1758	23,500
스웨덴	46.0	60.5	302	27,000
네덜란드	74.9	84.7	512	25,900
핀란드	27.0	52.8	162	25,300
캐나다	30.4	37.6	854	23,100
호주	32.2	22.9	519	20,700
이탈리아	10.6	16.4	1468	20,400
영국	40.8	66.1	1795	26,400
아일랜드	129.1	29.9	149	31,000
뉴질랜드	50.3	12.9	79	15,100
스페인	33.2	33.0	839	16,200
포르투갈	36.0	26.2	148	11,800
그리스	9.0	5.3	172	12,100
멕시코	24.0	1.9	626	6,400
헝가리	38.2	7.3	83	6,400
체코	54.8	2.1	85	6,800
폴란드	23.9	0.7	210	5,000
터키	10.2	2.2	240	2,600
한국	9.2	9.1	605	11,500

주: 1) FDI 통계는 2002년 잔고 기준.

2) GDP 통계는 2003년 기준.

자료: OECD, 홈페이지;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3*.

한편 FDI 유출/GDP 비중과 FDI 유입/GDP비중의 상관관계는 0.44407로서 약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은 우리나라의 직접투자 유출입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편이라는 것을 잘 나타내준다. 직접투자 유입의 경우 일본과 그리스에 이어 낮은 수준으로 3위이며 유출의 경우에도 해외직접투자 잠재력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그리스, 헝가리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일본(8.3%)보다 조금 높은 수준(9.1%)이다.

다. FDI 성과지수와 잠재력지수

UNCTAD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주는 간접적 증거로 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UNCTAD는 FDI의 잠재력과 실제 실적을 비교하여 FDI 성과지수(Performance Index)와 FDI 잠재력지수(Potential Index)를 발표한다. FDI 성과지수는 FDI 유치액의 3년 이동평균을 GDP로 나눈 비율이다. FDI 잠재력지수는 GDP 성장률, 1인당 GDP, GDP 중 수출비중, 인구 1천 명당 전화회선 수 및 이동전화 수, 1인당 에너지소비, 연구개발비중, 고등교육학생비율, 국가위험(country risk), 천연자원 수출비중 등의 11개 변수를 종합하여 산출한 것이다. UNCTAD는 FDI 유치 잠재력보다 성과가 현저히 좋거나 나쁜 4개 권별 국가를 발표한다. 이러한 2×2 매트릭스에 의하면 대부분의 OECD 국가는 FDI의 잠재력도 크고 실제 실적도 좋은 국가군에 속한다. 이는 FDI가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주장의 간접적 증거로 볼 수 있다.

<표 3-2>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외국인직접투자를 받아들일 잠재력이 매우 크며 실적도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OECD 국가 중 이러한 경향의 예외는 우리나라, 미국, 일본, 이탈리아, 터키 정도일 뿐이다. 우리나라가 잠재력에 비해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평가된 것은 역으로 외국인직접투자를 앞으로 유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UNCTAD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FDI 유입의 잠재력(potential)은 크나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2000~02년 기간중 우리나라의 FDI 잠재력순위는 세계 140개국 중 18위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성과지수는 140개국 중 107위로 나타나서 높은 FDI 잠재력-낮은 FDI 성과 국가군에 속하였다(표 3-3 참고). 이러한 결과는 1990년대 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표 3-2.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의 잠재력과 실적 매트릭스(2000-02년)

	높은 FDI 실적	낮은 FDI 실적
높은 FDI 잠재력	바하마, 벨기에/룩셈부르크,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아르헨티나, 이스라엘, 중국, 홍콩, 싱가포르, 태일랜드, 보츠와나, 브루나이, 칠레, 말레이시아, 폴란드, 베트남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일본, 미국, 한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낮은 FDI 잠재력	알바니아, 앙골라, 브라질, 콩고, 탄자니아	알제리아, 방글라데시, 터키, 이란, 파키스탄, 우루과이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4*.

<표 3-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잠재력 순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은 그만큼 투자기회가 많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잠재력순위에 비해 실적 순위가 매우 낮다는 사실도 잘 보여주는데 이는 적극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의 성공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사실도 잘 나타내준다.

표 3-3.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실적 및 잠재력의 세계순위

	1988 ~90	1989 ~91	1990 ~92	1991 ~93	1992 ~94	1993 ~95	1994 ~96	1995 ~97	1996 ~98	1997 ~99	1998 ~2000	1999 ~2001	2000 ~02	2001 ~03
실적순위	81	83	99	105	116	118	121	121	113	102	95	97	107	120
잠재력 순위	20	20	26	25	21	17	19	18	21	18	21	20	18	-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4*.

2. 외국인직접투자의 최근 동향

가. 세계동향

전 세계적인 직접투자 유입(flow)의 규모를 보면 1980년의 590억 달러에서 2003년에는 5,600억 달러로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동일한 기간 중 전 세계 GDP는 11조 7,370억 달러에서 36조 1,630억 달러로 약 3배 증가한 데 비하면 직접투자의 규모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2001년부터 직접투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9.11 테러 등 세계정치 정세의 불안과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UNCTAD의 평가에 의하면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향후 직접투자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03년 직접투자 중 약 3천억 달러 정도는 국경간 M&A일 정도로 M&A는 직접투자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직접투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선진국들을 보면 대체로 세계의 흐름과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¹¹⁾ 선진국 전체의 직접투자 유출은 2000년 1조 839억 달러에서 2001년 6,581억 달러, 2002년 5,476억 달러로

11) 최창규·이명훈(2004. 8. 31), 『주요국의 직접투자분석과 우리나라의 유치방안』, 산업자원부 정책과제보고서.

감소하였다가 2003년 5,696억 달러로 약간 증가하였다. 선진국의 직접투자 유입은 2000년 1조 1,080억 달러에서 2001년 5,715억 달러, 2002년 4,899억 달러, 2003년 3,666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특히 테러와 관련이 있는 미국과 영국의 직접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2003년에 세계 전체적으로 직접투자가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직접투자 유입이 증가하였다.

2002년과 2003년 사이에 산업별로는 정보통신(telecommunications)분야와 에너지 생산 및 분배(energy production and distribution)분야에서 직접투자의 증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분야에서는 체제전환국에서 동 산업의 민영화과정에서 직접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다. 국경간 M&A는 1990년대 후반과 2000년에 정보통신기업의 인수합병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주로 OECD 국가들의 통신부문 민영화와 소유지분 규제 완화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UNCTAD에 의하면 향후 외국인직접투자는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표 3-4.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유출입 추이

(단위: 억 달러)

	1992-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유입>							
전 세계	3,109	6,909	10,868	13,880	8,176	6,788	5,596
선진국	1,808	4,725	8,284	11,080	5,715	4,899	3,666
개도국	1,186	1,941	2,319	2,525	2,197	1,576	1,720
<유출>							
전 세계	3,282	6,872	10,923	11,868	7,215	5,965	6,122
선진국	2,757	6,315	10,143	10,839	6,581	5,476	5,696
개도국	514	534	755	989	599	440	356

주: * 연평균 실적.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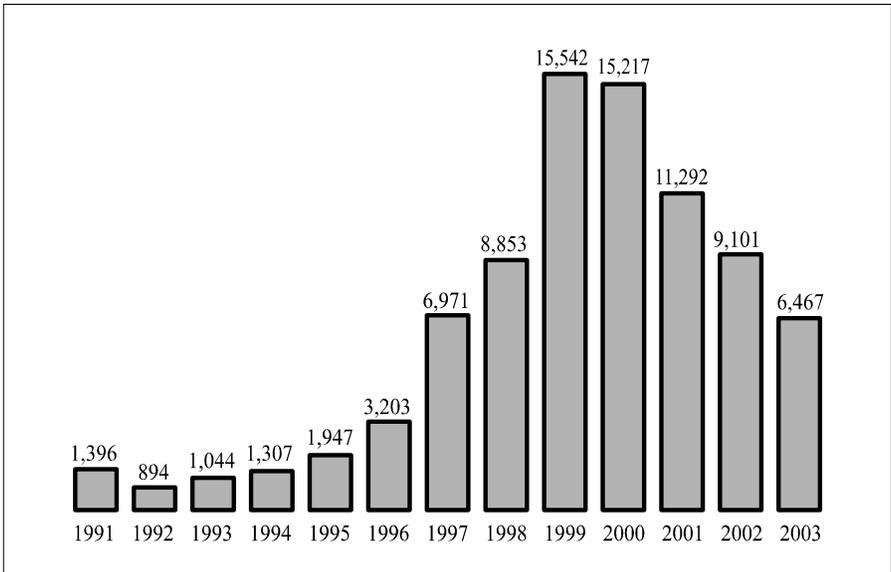
나.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1) 외환위기 이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직접투자는 1980년대 후반에 빠르게 증가 하였으나 1988년 이후에는 수년간 정체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는 1980년 대 후반에 빈번한 노사분규와 임금상승으로 저임금의 이점이 사라진데다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국내 금융기관에서의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인 하여 국내 영업환경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기간 중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것도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부진하게 하였다.

그림 3-1.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주: 신고액 기준.
 자료: 산업자원부

2)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외환위기 이후 1998~2000년의 3년간은 외국인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하여 외환위기 이전과 크게 구분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실적이 매우 저조하였다. 이는 세계경제 전반적으로 직접투자가 부진했다기보다는 우리나라가 투자유치국으로서의 이점을 지니지 못하였고 정부의 규제도 강하였기 때문이다. 세계 전체적으로 직접투자는 1980년대 후반기와 1990년대 초반에는 연평균 20% 정도의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나, 우리나라의 GDP 대비 직접투자의 잔고는 1990년대 중반까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서 주목할 사실은 1990년대 세계 직접투자의 증가는 상당 부분 중국 등 동아시아국가들의 높은 투자유치에 기인한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외환위기 직전부터 증가세를 보인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은 외환위기 직후 3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우리나라의 보유외환 확충 등에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에 이르러 세계의 직접투자는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에는 전년대비 약 29% 감소한 65억 달러가 직접투자로 유입되었다. 이는 9.11테러와 이라크사태 등 국제정치정세의 불안과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단, 2003년 65억 달러의 직접투자 유입을 매우 부진한 성과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즉 외환위기 직후 1998~2000년 기간 중 급격한 직접투자 유입에 비하면 2003년의 65억 달러 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하지만 세계적인 직접투자 감소세 등을 고려하면 상당한 수준의 직접투자 유입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최근의 직접투자 부진의 일부분은 통계적 착시현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단, 우리나라의 FDI 성과지수가 잠재력지수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은 잠재력에 맞는 수준의 직접투자유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향후 상당

기간 동안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3-5. 외환위기 이후 연도별 외국인투자 현황

(단위: 천, 백만 달러)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누계 (62-03)
금액 (증가율)	8,853 (27.0)	15,542 (75.6)	15,217 (△2.1)	11,292 (△25.8)	9,101 (△19.4)	6,467 (△28.9)	91,117 -
건수 (증가율)	1,401 (32.8)	2,105 (50.2)	4,140 (96.7)	3,340 (△19.3)	2,402 (△28.1)	2,561 (6.6)	26,239 -

주: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신고 기준.

자료: 산업자원부

<표 3-6>은 최근의 외국인직접투자의 국별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1962년부터 2003년 말까지 누계로는 미국이 275억 달러로 가장 많고 다음이 일본의 133억 달러 네덜란드의 105억 달러 순이다. 2002년에 91억 달러에 달하였던 외국인직접투자는 2003년에 65억 달러로 감소하였는데 국별로는 미국으로부터의 투자가 2002년 45억 달러에서 12억 달러로 일본으로부터의 투자가 2002년 14억 달러에서 2003년 5억 달러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한다. 반면 EU로부터의 투자는 2002년 17억 달러에서 2003년 31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2003년 말 잔고 기준으로는 미국이 30.2%, 일본이 14.5%, 네덜란드가 1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3-7>은 외국인직접투자의 산업별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2003년 잔고 기준으로는 제조업의 비중이 43.6%, 서비스업이 49.4%로서 외국인직접투자 중 제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서비스산업에 대한 직접투자는 제조업에 대한 직접투자보다 비중이 크다. 우리나라에서는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커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그만큼 앞으로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의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실제로 외국인직접투자의 산업별 구성에서는 서비스업의 비중은

2001년 64.1%, 2002년 56.4%, 2003년 63.9%로서 직접투자의 중심이 서비스업으로 이동하였음을 보여준다.

표 3-6. 2000년대 외국인직접투자의 국별 현황

(단위: 건, 백만 달러, 신고 기준)

구분	2001		2002		2003		누 계 (1962~2003)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국제협력기구	1	16	1	-	-	-	117	272
미주지역	766	5,584	588	4,859	566	1,841	6,919	35,101
미국	658	3,889	488	4,500	451	1,240	5,986	27,538
캐나다	26	1,506	32	261	36	73	298	2,993
버뮤다	18	57	9	6	8	6	117	1,589
케이맨군도	19	20	9	43	23	301	102	1,973
버진아일랜드	34	81	39	31	27	166	273	692
기타	11	31	11	18	21	55	143	316
아주지역	2,076	2,343	1,421	2,269	1,483	1,486	15,198	26,249
일본	591	772	474	1,404	495	541	7,719	13,256
싱가포르	58	190	48	146	44	236	453	2,730
홍콩	71	167	86	234	62	55	675	1,813
말레이시아	117	785	70	210	36	417	567	6,494
중국	812	70	442	249	522	50	3,624	522
대만	32	314	28	9	35	15	303	719
기타	395	45	273	17	289	172	1,857	715
EU(15개 국가)	306	3,062	264	1,663	282	3,061	3,420	27,641
독일	62	459	68	284	68	370	925	5,576
영국	51	432	36	115	55	871	574	2,832
프랑스	35	426	39	111	43	150	472	3,270
벨기에	15	201	9	73	13	1,346	103	2,321
네덜란드	64	1,245	43	451	40	161	638	10,521
아일랜드	16	174	10	23	14	15	139	1,390
기타	63	125	59	606	49	148	569	1,731
기타 지역	269	287	161	310	263	79	1,443	1,854
합계	3,418	11,292	2,435	9,101	2,594	6,467	27,097	91,117

주: 1개 사업에 여러 국가가 투자한 경우 국별로 각각 건수를 계상함.

자료: 산업자원부

표 3-7. 2000년대 외국인직접투자의 산업별 현황

(단위: 건, 백만 달러, 신고 기준)

구분	2001		2002		2003		누 계 (1962~2003)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농·축·수산·광업	9	7	7	16	18	6	210	416
제조업	681	2,911	581	2,336	586	1,697	10,567	39,732
식품	37	624	32	48	31	42	600	3,666
섬유, 직물, 의류	38	200	32	56	24	14	606	867
제지, 목재	7	68	16	52	9	36	26	2,516
화학	81	516	72	141	76	689	1,667	6,952
의학	13	19	9	45	6	16	233	798
비금속광물	20	241	14	65	22	41	407	1,915
금속	35	47	26	507	32	150	660	2,199
기계 및 장비	75	85	73	220	88	242	1,522	4,013
전기, 전자	241	896	188	517	193	298	2,868	12,069
운송용 기계	66	145	71	588	62	121	824	4,027
기타 제조	68	70	48	97	43	48	964	710
서비스업	2,599	7,235	1,772	5,131	1,915	4,131	15,030	45,037
도, 소매(유통)	1,660	1,495	1,109	587	1,224	947	9,543	14,557
음식, 숙박	101	429	90	815	91	211	715	5,312
운수, 창고(물류)	61	22	54	417	63	116	524	1,385
통신	30	156	16	68	16	505	187	1,345
금융, 보험	198	1,769	166	1,023	517	1,649	1,104	11,340
부동산, 임대	51	566	41	566	69	336	291	2,898
비즈니스서비스	384	288	207	273	223	279	2,123	2,815
문화, 오락	58	2,496	32	361	22	24	223	4,785
공공, 기타 서비스	56	14	57	1,021	50	64	320	1,600
전기가스수도건설	51	1,139	42	1,618	42	633	432	4,932
전기가스수도	17	511	6	1,099	3	91	52	2,597
건설	34	628	36	519	39	542	380	2,335
합계	3,340	11,292	2,402	9,101	2,561	6,467	26,239	91,117

자료: 산업자원부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 내수시장 진출이 목적이다. 이는 서비스의 비교역적 특성에 기인한다. 1990년대 이후 외국인직접투자의 비중이 서비스산업 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심이 내수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최근의 외국인직접투자의 동기는 생산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 생산거점형 투자에서 점차 시장/관료개혁형의 동기를 지닌, 즉 내수시장 진출의 동기에 의한다고 볼 수 있다.

3) 서비스산업 외국인직접투자의 지역집중¹²⁾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의 국내 지역별 분포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수도권 집중 및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심화현상이다.¹³⁾ 이러한 현상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에서 나타나지만 특히 서비스산업의 직접투자에서 더 두드러진다. 전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88%가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으며 서비스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약 92%가 수도권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서비스산업의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수도권의 대규모 소비시장에 입지하려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대부분 집적경제의 이익이 크고 정보획득이 용이하며 해외 모기업과의 교류가 편리한 수도권지역에 대한 강한 선호를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12) 지역집중 현황에 대한 자료는 차미숙·정윤희(2002. 12),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형별 입지특성과 지역연계연구』, 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 2002-21를 참고.

13) 차미숙·정윤희(2002)의 외국인직접투자기업 면담조사에 의하면 제조업의 외국인직접투자기업 가운데 지방입지를 선택한 경우에도 대부분 수도권의 집적이익을 누릴 수 있는 중부권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은 국내 지방입지의 최장반경한계를 천안(충남북부지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사와 공장을 지방에 두는 경우에도 서울에 실질적인 본사기능을 하는 영업소나 사무소를 두어 영업 및 해외 모기업과의 교류 등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수도권집중도(지방 = 1.0)*

투자시기	1962~79	1980~89	1990~97	1998~2001	전체
전산업	1.67	2.26	5.19	7.12	5.41
제조업	1.50	2.10	2.15	2.89	2.32
서비스업	10.5	4.56	13.19	11.52	11.47

주: *지방 1개사에 대한 수도권 업체 수.

자료: 차미숙·정윤희(2002. 12),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형별 입지특성과 지역연계 연구』, 국토연구원 연구자료 2002-21.

표 3-9. 서비스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집적지역

순위	1962~97	1998~2001	1962~2001 누계
<업체 수>			
1위	서울 강남구	서울 강남구	서울 강남구
2위	서울 서초구	서울 중구	서울 중구
3위	서울 중구	서울 종로구	서울 서초구
4위	서울 영등포구	서울 서초구	서울 종로구
5위	서울 종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영등포구
6위	서울 용산구	서울 용산구	서울 용산구
7위	서울 마포구	서울 마포구	서울 마포구
8위	서울 송파구	서울 송파구	서울 송파구
9위	서울 강서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강서구
10위	부산 중구	서울 강서구	서울 동대문구
상위 10위 누계	78.8%	65.9%	69.1%
<투자액 기준>			
1위	서울 중구	서울 강남구	서울 강남구
2위	대전 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중구
3위	서울 강남구	서울 중구	서울 영등포구
4위	서울 종로구	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
5위	서울 서초구	경기 부천시	대전 서구
6위	서울 영등포구	서울 종로구	서울 종로구
7위	부산 해운대구	인천 부평구	경기 부천시
8위	서울 용산구	부산 부산진구	인천 부평구
9위	서울 송파구	부산 동구	부산 부산진구
10위	서울 마포구	충남 서산시	부산 동구
상위 10위 누계	91.1%	87.0%	85.3%

자료: 차미숙·정윤희(2002. 12),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형별 입지특성과 지역연계 연구』, 국토연구원 연구자료 2002-21.

서비스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분포 및 집적실태를 보면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업체 수 상위 10위권 지역이 모두 서울이며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및 기타 지역내의 분포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이 지역들에 대한 집중도는 다소 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은 기업활동과정에서 필요한 사업지원서비스를 대부분 수도권 소재 전문 서비스업체로부터 구매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제4장 서비스산업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방안

4장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방안을 살펴본다. 먼저 제1절은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요인을 간단한 모형을 통해 분해하여 살펴본다. 이를 통하여 산업별 증가요인의 차이점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제2절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의 전반적 변천추이와 주요 유치정책에 대하여 살펴본다. 3절은 정책방향과 과제 및 서비스산업의 타기팅 방향에 대하여 논의한다.

1.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요인 분해¹⁴⁾

외국인직접투자는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이 요인들을 분해해서 파악하면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수립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직접투자 유입이 활발하지 못하였으며 외환위기 이후에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부족한 외환의 보충을 위하여 직접투자가 적극적으로 장려되었고 금융기관의 인수합병 등을 통하여 직접투자가 많이 유치되었다. 따라서 1998~2000년의 3년간의 직접투자의 급격한 유입은 외환위기 이전 및 2000년 이후와는 다른 여건에 기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외부충격이 어느 정도 사라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2000년 말~2002년 말의 2년 기간 중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을 요인별로 분해하고 이로부터 의미 있는 정책적 시사점 등을 도출하고자 한다.¹⁵⁾ 먼저

14) 외국인직접투자의 잔고(stock)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한다는 사실이 바로 외국인직접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15) 최창규(2004)는 1981~99년까지 42개국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된 직접투자 자료를 이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와

이 기간 중 세계 각국의 직접투자가 비례적으로 증가한다고 상정하였을 경우에 우리나라의 직접투자 잔고가 증가하는 효과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세계적 추세효과로 생각할 수 있다(세계추세효과). 다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산업별 특성에 따라 직접투자의 증가속도가 다르므로 이에 영향받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최근 서비스산업의 직접투자가 농업이나 광업 등보다 빠르게 증가하므로 기존 직접투자 중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크거나 서비스산업의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국가들의 직접투자 잔고는 농업이나 광업의 비중이 큰 국가들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직접투자 잔고의 산업구성이 우리나라와 세계 사이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산업구성효과로 부를 수 있다. 끝으로 각 산업별로 전 세계의 직접투자 잔고 증가율과 우리나라의 증가율의 격차부분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특성(직접투자 유치정책 등의 국가간 차이 및 시장상황)에 따른 직접투자의 유입효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국가효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직접투자 잔고의 증가를 세 가지 효과로 분해할 수 있으며 이 효과들을 합치면 직접투자 증가분이 된다(식 4-1 참고).

분석을 위하여 먼저 변수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변수의 정의

g = 주어진 기간(2000년 말~2002년 말) 세계의 직접투자 잔고(전체) 증가율

g_i = 주어진 기간 i 산업의 세계 직접투자 잔고 증가율

k = 주어진 기간 우리나라의 직접투자 유입 잔고(전체) 증가율

k_i = 주어진 기간 우리나라 i 산업의 직접투자 유입 잔고 증가율

X_i = i 산업의 초기 직접투자 잔고

ΔX_i = i 산업의 기간 중 직접투자 잔고 증가액

투자국의 경제거래규모가 클수록, 양국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우리나라보다 투자국의 이자율이 낮을수록, 투자국보다 우리나라의 임금이 낮을수록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우리나라 i산업의 직접투자 잔고의 증가분 ΔX_i 는 <식 4-1>과 같이 쓸 수 있다.

<식 4-1>

$$\Delta X_i = k_i X_i = \underset{A}{g} X_i + \underset{B}{(g_i - g)} X_i + \underset{C}{(k_i - g)} X_i \quad (\text{방법1})$$

$$= \underset{A'}{g} X_i + \underset{B'}{(k_i - k)} X_i + \underset{C'}{(k - g)} X_i \quad (\text{방법2})$$

<식 4-1>은 i산업의 직접투자 잔고의 증가를 세 가지 효과로 분해하는 두 가지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¹⁶⁾ 먼저 방법1에서 A부분은 세계추세효과이다. 즉 직접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B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직접투자 전체의 증가율과 i산업 증가율의 격차에서 오는 효과를 나타내며 세계산업구성효과로 부를 수 있다. 끝으로 남아 있는 부분 C는 우리나라의 i산업의 증가효과와 세계 i산업의 증가효과 차이로서 우리나라의 고유한 정책의 효과를 측정한다고 볼 수 있으며 미시적 국가효과로 부를 수 있다. 방법2에서 A'는 방법1과 마찬가지로 세계추세 효과이다(A = A'). B' 부분은 우리나라의 직접투자 잔고 전체 증가율과 i산업의 증가율의 격차에서 발생하는 부분으로서 우리나라의 산업구성효과로 부를 수 있다. C' 부분은 세계 직접투자 증가율과 우리나라 직접투자 증가율의 격차에 의한 부분으로서 거시적 국가효과로 부를 수 있다.

한편 직접투자 전체 증가분을 각 산업의 증가분을 더하여 표시하면 <식 4-2>와 같다.

16) 이와 같은 분해방법은 CMS 분석(constant market share analysis)기법을 응용한 것이다.

<식 4-2>

$$\sum \Delta X_i = \sum k_i X_i = \sum g X_i + \sum (g_i - g) X_i + \sum (k_i - g) X_i \quad (\text{방법1})$$

A B C

$$= \sum g X_i + \sum (k_i - k) X_i + \sum (k - g) X_i \quad (\text{방법2})$$

A' B' C'

<식 4-2>에서 주목할 것은 방법2에서 산업구성효과 B'는 모든 산업에 대해 집계할 경우 0이 된다는 것이다. 즉 방법2는 집계할 경우 직접투자 증가는 세계추세효과와 국가효과로 구분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한 통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의 변수는 산업자원부 통계의 신고기준 통계를 이용하여 산업별 증가율을 계산하였다.¹⁷⁾ 산업별 전 세계 직접투자 잔고는 UNCTAD에서 발표한 2002년 잔고를 사용하였다.¹⁸⁾ 세계 직접투자의 산업별 잔고는 1990년과 2002년 통계만 발표되었으므로 2000년 말 통계는 다음과 같은 선형식을 이용하여 산업별로 추정하였다. S₉₀, S₀₀, S₀₂를 각각 1990년, 2000년, 2002년의 직접투자 잔고라고 하면 발표된 S₉₀과 S₀₂를 이용하여 S₀₀을 <식 4-3>과 같이 추정하였다.

<식 4-3>

$$S_{00} = S_{90} + (S_{02} - S_{90}) \times 10/12$$

즉 2000년 말 통계는 1990~2002년 기간 중 증가액을 선형으로 분할하여 1990년 말 잔고에 더하여 얻은 것이다. 선형보다는 지수함수형태의 증가함수를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1990년과 2002년의 시차가 비교적

17) 세계 직접투자 증가율은 UNCTAD의 도착기준 통계이므로 신고기준으로 작성된 우리나라 통계와 통계기준은 다르지만 도착기준과 신고기준의 증가율 차이는 작다고 가정한다.

18) UNCTAD(2002), *World Investment Report 2004*, Annex table A.1.18. "Estimated world inward investment stock, by sector and industry 1990."

짧으므로 선형식을 이용하는 데 따른 오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¹⁹⁾ 이와 같은 방식을 이용하여 2000~02년 기간 중 세계 직접투자 잔고 증가율을 계산한 결과 세계 전체로는 $g = 13.9\%$ 의 결과를 얻었다. 이 결과를 이용하여 계산한 세계추세효과는 <표 4-1>과 <표 4-2>에 제시되어 있다. 다음으로 UNCTAD 통계를 이용하여 서비스 세부산업별로 직접투자 증가율을 계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²⁰⁾

농축수산물업	$g_i = 11.0\%$
제조업	$g_i = 12.6\%$
전기가스수도건설	$g_i = 16.5\%$
서비스산업 전체	$g_i = 14.9\%$
(음식숙박)	$g_i = 12.4\%$
(운수창고통신)	$g_i = 18.6\%$
(금융보험)	$g_i = 13.1\%$
(비즈니스서비스)	$g_i = 17.4\%$

도소매, 부동산임대, 문화오락, 공공 기타 서비스 등의 세부산업별 세계증가율은 발표된 통계만으로는 계산이 불가능하므로 서비스산업 전체 증가율인 14.9%를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통계를 이용하여 직접투자 증가분을 3개 효과로 분해한 결과는 <표 4-1>과 <표 4-2>에 제시되어 있다. <표 4-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세계추세효과는 2000~02년 기간 중 우리나라 직접투자 증가분의 43.8%를 설명할 수 있으며 국가효과는 56% 부근인데 비해 산업구성효과의 합계는 아주 작은 것을 확인할 수

19) 선형식을 이용함에 따라 지수식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증가율이 과대추계되었을 수도 있으나 2001~02년 기간 중 세계직접투자가 매우 부진하였으므로 이를 상쇄하였을 것이다. 추계된 증가율은 실제보다 약간 높을 것으로 보인다.

20) UNCTAD 통계와 우리나라 산업자원부 통계의 산업분류가 일치하지 않아서 일부 서비스산업의 세계직접투자 증가율은 이용할 수 없었다.

있다. 이는 우리나라 직접투자 잔고의 산업구성이 세계 직접투자 잔고의 산업구성과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직접투자 잔고가 세계평균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는 2000년도 우리나라의 직접투자 잔고가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표 4-1>에서 제조업과 농, 축, 수산, 광업의 산업구성효과는 부(-)로 나타나서 세계적으로 이 산업들의 직접투자 증가율이 산업평균에 못미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직접투자 잔고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표 4-1. 산업별 직접투자 증가요인 분해(방법1)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00년 잔고(I)	2002년 잔고(II)	FDI증가액 (II-I)	세계추세효과 (A, 13.9%)	산업구성 효과(B)	국가 효과(C)
농, 축, 수산, 광업	387	410	23	54	▲11	△20
제조업	32,788	38,035	5,247	4,558	▲426	1,113
서비스업	29,540	41,906	12,366	4,106	295	7,965
도,소매(유통)	11,528	13,610	2,082	1,602	115	365
음식, 숙박	3,857	5,101	1,244	536	▲58	766
운수, 창고(물류)	830	1,269	439	115	39	363
통신	616	840	224	86	29	109
금융,보험	6,899	9,691	2,792	959	▲55	1,778
부동산, 임대	1,430	2,562	1,132	199	14	919
비즈니스서비스	1,975	2,536	561	275	69	217
문화, 오락	1,940	4,761	2,857	265	19	2,573
공공, 기타 서비스	501	1,536	1,035	70	5	960
전기가스수도 건설	1,542	4,299	2,757	214	40	2,503
합 계	64,257	84,650	20,393	8,933 (43.8%)	▲102 (-0.5%)	11,561 (56.7%)

자료: 본문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자체 계산. 우리나라 통계는 산업자원부 발표통계 이용.

전 세계적으로 직접투자가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앞으로도 제조업의 산업구성효과는 부(-)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제조업의 직접투자 유치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서비스산업 중에서는 음식숙박, 금융보험 등의 산업구성효과가 부(-)로 나타났다. 농, 축, 수산, 광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미시적 국가효과는 양(+)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직접투자가 거의 모든 산업에서 세계추세보다 빠르게 증가하였음을 나타낸다. 특히 서비스산업의 경우 124억 달러의 증가액 중 80억 달러 정도가 국가효과로서 증가액의 약 2/3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법2의 산업구성효과는 집계하면 0이 되어야 하지만 계산과정에서 반올림 등의 영향으로 0.1% 수준으로 계산되었다. 방법2에 의한 산업구성효과를 보면 제조업과 농, 축, 수산, 광업은 방법1과 마찬가지로 부(-)의 산업구성효과를 보였다. 특히 제조업의 산업구성효과는 약 51억 달러로 큰 폭의 부(-)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도 동 산업들은 평균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서비스산업 중에서는 도소매(유통)업이 큰 규모의 부(-)의 산업구성효과를 보이고 있다. 방법1과 방법2에서 도출한 산업구성효과의 상관계수는 0.742839로서 상당한 정도의 양의 상관관계를 지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산업별 직접투자추세가 세계의 산업별 직접투자추세와 연관되어 있음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위에서 개발된 간단한 모형은 복잡한 계량적 추정식의 계산을 거치지 않고 간단한 수식을 통하여 직접투자증가의 요인을 분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이용하여 직접투자 증감의 원인 등을 파악해서 정책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통계가 보충되면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직접투자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직접투자 결합도 등의 계산도 가능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보다 정확한 직접투자 증감요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2. 산업별 직접투자 증가요인 분해(방법2)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00년 잔고(I)	2002년 잔고(II)	FDI증가액 (II-I)	세계추세효과 (A, 13.9%)	산업구성 효과(B')	국가 효과(C')
농, 축, 수산, 광업	387	410	23	54	▲100	69
제조업	32,788	38,035	5,247	4,558	▲5,147	5,836
서비스업	29,540	41,906	12,366	4,106	3,002	5,258
도, 소매(유통)	11,528	13,610	2,082	1,602	▲1,572	2,052
음식, 숙박	3,857	5,101	1,244	536	21	687
운수, 창고(물류)	830	1,269	439	115	176	148
통신	616	840	224	86	28	110
금융, 보험	6,899	9,691	2,792	959	605	1,228
부동산, 임대	1,430	2,562	1,132	199	678	255
비즈니스서비스	1,975	2,536	561	275	▲66	352
문화, 오락	1,940	4,761	2,857	265	2,253	339
공공, 기타 서비스	501	1,536	1,035	70	876	89
전기가스수도 건설	1,542	4,299	2,757	214	2,269	274
합 계	64,257	84,650	20,393	8,933 (43.8%)	24 (0.1%)	11,437 (56.1%)

2.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추이

가. 유치정책의 변천과정²¹⁾

외환위기 이전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 추이는 정책기조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즉 경제개발 초기인 1960~70년대에는 외국인직접투자를 규제하는 입장을 유지하다가 경제개발이 어느 정도 이

21) 박시룡(2000. 1), 『외국인직접투자: 패턴변화와 유치촉진방안』,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연구총서 2000-85, pp. 116~130; 장윤중·전주성(2000. 5), 『글로벌경제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 산업연구원 21세기 준비 연구보고서 시리즈 2000-20 참고.

루어진 1980년대에 이르러서 투자자유화를 위한 기반조성을 추진하였으며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점차 자유화를 확대하였다.²²⁾

경제개발 초기(1962~83)에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소극적이었다. 경제개발에 필요한 재원은 주로 차관을 통하여 조달하였으며 기술도입은 직접투자보다는 라이선스 계약과 기술자 파견을 통해 이루어졌다. 제2단계(1984~89)는 규제에서 유치로 직접투자 관련 정책이 전환되는 기반조성단계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1984년 외국인직접투자 허용업종을 종전의 허용업종열거방식(positive list system)에서 금지 및 제한업종열거방식(negative list system)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제한업종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된 투자비율 50% 보유 제한규정을 폐지하였다. 이 기간 중 정부는 자유화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점진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제3단계(1990~97)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자유화단계이다. 1991년에는 인가제와 병행하여 신고제를 도입하였고 1992년에는 원칙신고·예외인가제로 전환하였다. 1993년에는 224개 제한업종 중 132개 업종에 대해 외국인투자개방5개년계획(1993~97)을 수립하였으며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개방계획을 앞당겼다. 정부의 자유화조치는 1996년 OECD 가입으로 더욱 가속화되었다. 1997년 1월에는 기존의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로 개정하여 제도의 선진화를 도모하였다.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인수합병(M&A)방식의 외국인투자를 허용한 것이다. 이때부터 신설형 투자(greenfield investment)뿐 아니라 M&A형 투자가 허용되었다.

22) 옥규성 등(1997)은 우리나라 직접투자 유치정책의 기초를 제도도입기(1960~83), 부분개방기(1984~92), 자유화시기(1993~)로 구분하였다. 시기 구분에 약간의 시차가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제도도입, 부분개방, 자유화의 3단계로 정책기조의 변화를 구분한다는 점에서 박시룡(2000); 장윤중·전주성(2000)의 시기 구분과 유사하다.

표 4-3. 외국인직접투자 정책기조의 추이

단계	주요내용
투자제한단계 (1962~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직접투자보다 차관우선의 외자유치정책 추진
기반조성단계 (1984~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업종열거방식(positive list system)에서 금지 및 제한종열거방식(negative list system)으로 전환 ◦ 제한업종에 대한 일률적인 50% 지분제한 철폐
자유화 단계 (1990~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신고제 도입(1991) ◦ 원칙신고·예외인가제로 전환(1992) ◦ 외국인투자개방5개년계획 수립(1993) ◦ 공장설립과 관련 복합민원 일괄합동심의제와 민원자동승인제 도입(1995) ◦ 우호적 M&A 투자 허용(1997)
유치촉진단계 (1998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추가 개방(1998.4, 5) ◦ 외국인의 국내기업 M&A 전면 허용 ◦ 외국환거래 자유화(1998. 6) ◦ 외국인토지취득 전면 개방(1998. 7)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1998. 7) ◦ 규제개혁 및 4대부문 개혁 추진

자료: 박시룡(2000. 1), 『외국인직접투자: 패턴변화와 유치촉진방안』,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연구총서 2000-85; 장운중·전주성(2000. 5), 『글로벌경제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 산업연구원 21세기준비 연구보고서시리즈 2000-20.

나. 외환위기 이후의 정책²³⁾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하여 획기적인 개방과 자유화조치를 단행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투자유치 촉진단계에 들어갔다.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을 대폭 축소하여 현재 업종 기준으로 투자자유화율은 99.8%로서 선진국 수준이다. 정부는 외환 및 금융분야도

23) 본 소절의 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Invest KOREA 홈페이지(www.investkorea.org)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자유화하고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허용하였다. 이제 외국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없이 국내에서 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의 일부 업종은 제한을 받는다. 이와 같은 외국인투자 제외업종은 현실적으로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지기 힘든 업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투자가 가능한 거의 모든 업종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자유화되었다.

표 4-4.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 중앙은행, 개인·사업공제,연금, 증권 및 선물거래소, 기타 금융시장관리, 어음교환, - 입법·사법·행정기관, 주한 외국공관,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 - 경제학연구개발,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연구개발 - 교육기관(유아, 초등에서 대학, 특수학교 등) - 예술가, 종교단체, 산업·전문가·환경운동·정치·노동운동단체 등

자료: Invest KOREA 홈페이지(www.investkorea.org)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경우는 대부분 외국인의 주식취득 한도를 정하는 형태로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제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투자통합공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이외의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의 규정을 외국인이 알기 쉽도록 매년 통합하여 공고하는 제도이다. 외국인은 외국인투자가 금지되는 업종 및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할 수 없으며, 외국인투자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업종을 둘 이상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허용비율이 가장 낮은 업종의 외국인투자 비율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그러나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이라도 당해 기업의 총매출액 중 제한업종의 매출액 비율이 1%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할 수 있다.

표 4-5.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제한업종	외국인투자 허용기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	벼, 보리 제외
육우사육	외국인투자 비율 50% 미만
연·근해어업	외국인투자 비율 50% 미만
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	신문은 외국인투자 비율 30% 미만, 그 외는 50% 미만
핵연료가공	원자력발전 연료의 제조·공급사업을 제외하고 허용
발전업	원자력발전 제외
송전업, 배전 및 판매업	외국인이 최대주주가 아니며, 외국인투자 비율 50% 미만
육류 도매	외국인투자 비율 50% 미만
내항여객, 내항화물운송	남·북한간 운송, 국내회사와 합작 필수, 외국인투자 비율 50% 미만
정기, 부정기 항공운송	외국인투자 비율 50% 미만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 유선전화사업 무선전화사업, 무선호출 및 기타 무선통신업, 기타 전기통신업	외국인투자 비율 49% 이하(다만 한국전기통신공사(KT)는 외국인 최대주주 제한 및 1인 투자 비율 15% 이하)
국내은행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허용(특수은행과 농수축협 미개방)
라디오, 텔레비전방송	미개방
방송채널사용	외국인투자 비율 33% 이하, 단 종합편성 및 보도프로그램 전문편성채널사용사업은 미개방
종합유선 및 기타 유선방송	외국인투자 비율 33% 이하, 단 중계유선방송은 미개방
위성방송	외국인투자 비율 33% 이하
뉴스 제공	외국인투자 비율 25% 미만
방사성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제외하고 허용

자료: Invest KOREA 홈페이지(www.investkorea.org)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입지지원과 조세지원 등의 각종 투자인센티브를 확충하고 투자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투자유치 지원조직을 운용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지원센터(Korea Investment Service Center: KISC)는 2003년 12월 Invest KOREA로 재출범하였다. Invest KOREA는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상담, 안내, 홍보,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외국인투자 신고 등의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며, 창업보육과 기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별로 프로젝트매니저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프로젝트매니저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요청에 의한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제공 및 면담의 알선, 외국인투자 관련 조세감면, 국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 및 현금 지원에 관한 의견 제시,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업무지원과 민원의 대행, 주택임차·학교입학의 안내 등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과 가족의 생활정착 지원 등의 일을 수행한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맨사무소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외국인투자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이행건의 및 기타 애로사항 처리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를 위한 고충처리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별, 투자기업별로 고충처리전담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들은 투자 유치 등의 일선업무와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중앙정부에서는 외국인투자위원회(재정경제부),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 소위원회(산업자원부) 등의 외국인투자 유치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다.

다. 주요 지원제도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주요 지원제도는 조세감면,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및 입지·현금지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개발 등이다.

1) 조세감면

가) 법인세·소득세,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소득과 배당소득, 기술도입대가, 근로소득 등에 대해서 법인세, 소득세를 감면하고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고 있다. 감면대상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로서 다음의 각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다.

조세감면대상은 신규로 공장시설이나 사업장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이며, 사업의 양·수도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는 감면 폭이 3년 50%, 2년 30%로 축소된다.

나)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 지급수단 또는 내국 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해서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면제받을 수 있는 자본재는 감면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투자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한 자본재이다.

표 4-6. 조세감면대상기업

구분	조세감면 요건	
산업지원서비스업 (149개)	◦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 지원 등 다른 사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	
고도기술수반사업 (485개)	◦ 국내에서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되지 않은 다음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날(신고일 기준)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당해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기업으로서 공장시설 등을 새로이 설치	-제조업은 투자금액 3천만 달러 이상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종합유원시설, 국제회의시설 등은 투자금액 2천만 달러 이상 -물류(유통)산업, SOC는 투자금액 1천만 달러 이상 -고도기술 등의 연구시설은 투자금액 500만 달러 이상에 석사 이상 연구원 10인 이상 -2개사 이상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 합계액이 3천만 달러 이상	
관세자유지역,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500만 달러 이상 투자한 물류업 -1천만 달러 이상의 제조업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제조업, 관광업은 투자금액 1천만 달러 이상 -물류업은 투자금액 500만 달러 이상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	-3천만 달러 이상 투자 또는 외국인투자 비율 50% 이상으로 총개발사업비 5억 달러 이상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 시행자	-1천만 달러 이상 투자 또는 외국인투자 비율 50% 이상으로 총개발사업비 1억 달러 이상	
제주지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생명공학, 정보통신, 문화, 첨단기술
	제주투자진흥지구	-관광업, 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업, 청소년수련시설업, 케도시설업, 대체에너지사업, 한국전통호텔업, 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공연장업, 종합유원시설업 -투자금액 1천만 달러 이상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제조업은 투자금액 1천만 달러 이상, 상시 고용원 100명 이상 -물류업은 투자금액 1천만 달러 이상

자료: Invest KOREA 홈페이지(www.investkorea.org)

표 4-7. 조세감면내용

감면대상	감면기간	감면요건
법인세, 소득세	- 2004년 12월 31일까지 총 10년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 총 7 년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산업지원서비스업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사업
	총 5년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투자진흥 지구의 개발사업자인 외국인투 자기업 -제주지구(제주첨단과학기술단 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 유무역지구)입주기업
재산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등록세	- 2004년 12월 31일까지 총 8년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 총 7년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산업지원서비스업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사업
	총 5년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투자진흥 지구의 개발사업자인 외국인투 자기업 -제주지구(제주첨단과학기술단 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 유무역지구)입주기업

주: 재산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등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15년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하거나 감면비율 상향 조정 가능.

표 4-8. 관세 등의 감면 현황

감면대상	감면기간	감면요건
관세	3년간 100%	-산업지원서비스업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사업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자인 외국인투자기업 -제주지구(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구) 입주기업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3년간 100%	-산업지원서비스업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사업

2)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및 입지 지원

외국인직접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운영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공장, 그밖의 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해 임대하거나 매입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50년 범위내에서 갱신할 수 있고, 임대료는 당해 토지공장, 그밖의 재산 가액에 1%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다. 그러나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안에 있는 토지공장, 그밖의 재산 등의 임대요율은 산업자원부 장관이, 국유재산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장관과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과 각각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을 적용한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토지공장, 그밖의 재산을 매입할 때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입대금의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할 수 있다.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등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내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의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

에 따라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은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국가산업단지, 일반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토지를 임대하여 공장시설이나 사업장을 신규로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다. 감면 기준과 감면비율은 <표 4-9>와 같다.

표 4-9. 임대료의 감면내용

감면 기준	감면비율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금액이 100만 달러 이상으로서 조세감면 결정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사업 등 - 국가소유 토지 등을 임대하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 운영자	100% 이내
-외국인투자금액이 500만 달러 이상인 제조업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	75% 이내
-국가산업단지, 일반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 기업	50% 이내

3) 현금지원

2004년부터 외국인투자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현금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금지원규모는 외국인투자자와의 협상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품·소재산업의 경우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경우,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부품·소재로서 기술과급효과 또는 부가가치창출효과가 큰 경우,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간 연관효과가 큰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현금지원은 일시에 지급하거나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에 분할하여 지급된다. 분할지급의 경우 투자계획 변경이나 분할지급된 현금지원금의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분할지급하는 현금지원금의 금액 또는

지원시기 등을 조정한다. 토지매입비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또는 최종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며, 임대료는 신청인과 임대토지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인과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교육훈련보조금과 고용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간 비용이 지출된 해의 다음 연도 초에 일괄지급한다.

표 4-10. 현금지원내역

고려요소	조건	현금지원내용
-고도기술수반 여부 및 기술이 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 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투자의 생존 가능성	-외국인투자금액이 1천만 달러 이상,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 영위를 위한 공장시설·사업장의 신설·증설 -외국인투자금액이 1천만 달러 이상, 최종생산품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크거나, 첨단·핵심기술을 수반하는 부품소재 생산을 위한 공장시설의 신설·증설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위한 연구시설의 신설·증설, 단 외국인투자금액이 500만 달러 이상, 3년 이상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20인 이상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건축비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에서 사업용 또는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4)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투자지역은 시장·도지사가 대규모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투자가가 공장 건립을 희망하는 지역을 사후적으로 지정하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제도이다. 즉 투자가가 원하는 지역에 투자지역 지정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각 시장·도지사는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자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한다. 다만 국가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지역이 지정되어 이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있을 때에는 그 기관이 관리한다.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공장 등의 설립을 위한 새로운 부지의 조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개발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한편 둘 이상의 외국투자자가 투자하는 지역은 외국인투자금액이 3천만 달러 이상이면서 영위하는 업종 또는 사업이 <표 4-11>의 업종기준에 해당하고,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이 동일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 안이거나 인접할 경우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표 4-11.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기준

업종 기준	지정 기준
제조업, 산업지원서비스업·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금액이 3천만 달러 이상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시설	외국인투자 금액이 2천만 달러 이상
복합화물터미널 사업, 공동집배송센터지 조성·운영사업, 항만시설 운영사업, 공항시설 운영사업, 물류산업, 사회간접자본시설조성사업	외국인투자금액이 1천만 달러 이상
연구시설	-외국인투자금액이 500만 달러 이상 -3년 이상 연구경력을 지닌 석사학위 이상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10인 이상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고시 5년내 다음의 지정 기준을 완전히 충족시켜야 한다.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국가 산업단지에 준한 건설비용 및 기반시설 지원,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 통신전기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을 하고,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100% 면제하며 시설물 등의 건축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 또한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제한이 완화되며, 중소기업 고유업종 참여제한을 받지 않는다.

3. 정책방향과 과제

가. 일반적 논의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고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연관관계가 심화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2장에서 살펴보았다. 3장의 분석을 통하여 최근 외국인직접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서비스산업 직접투자가 직접투자의 대종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UNCTAD(2004)는 향후 서비스산업의 직접투자가 세계 직접투자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유치 정책은 서비스산업의 직접투자 유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실제로 2003년의 경우 서비스산업의 직접투자 유입은 전체 직접투자의 63.9%이며 전기가스수도건설을 포함한 이른바 3차산업의 직접투자 유입은 73.7%로서 직접투자 유입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직접투자 유입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원활한 유치는 바로 서비스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원활한 유치를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의 현재 발전단계에서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산업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가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서비스산업의 직접투자 유치의 정책방향은 직접투자 전반에 대한 일반적 정책방향과 서비스산업에 특정한 정책으로 구분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정부는 지난 수년간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으며 산업의 특성상 외국인직접투자가 어려운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자유화되었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은 현재 내국기업과 동등하거나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있으므로 내국민대우문제는 거의 완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내국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의가 나올 정도로 현재의 외국인투자정책은 투자기업에 대해 상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제도의 개선과 우리 경제에 대한 외부의 긍정적 평가에 힘입어 외국인직접투자는 지난 수년간 세계의 추세보다는 빠르게 유입되었다. 2000년 말~2003년 말 기간 중 외국인직접투자(신고 기준) 잔고는 전체 41.8%, 서비스산업 55.8% 증가하였다. 이는 세계의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속도보다 두 배 이상 빠른 것이다. 단 기존의 직접투자 잔고가 아주 낮은 수준이었으므로 앞으로도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할 것이다.

제도적인 면에서 자유화가 이루어졌으므로 이제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실적(총액) 자체보다는 외국인직접투자제도의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업 관련 제도와 환경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는 계기로 삼고 경제발전엔 기여도가 높은 투자를 유치하는 데 노력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는 상당한 수준으로 갖추어졌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의 운용이며, 운용상의 미비점 등을 찾아 이를 보완하는 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장기적 과제는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공급 측면의 애로요인을 해소하는 것이다. 예로써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안정된 노사관계 정립,

시장친화적 경제제도 구축, 고급인력 양성 등은 공급 측면의 애로요인 해소로 볼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도 외국인직접투자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 경제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자유무역협정을 다수 체결한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사업여건을 제공하며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제조업 등의 직접투자 유입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제조업의 직접투자 증가는 바로 이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산업의 직접투자유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에는 선진국수준의 의료, 교육 외에 외국어수준의 향상 등이 해당될 것이다. 이 정책들은 그 자체가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 추구해야 할 과제이며 이를 통하여 외국인직접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의 서비스투자는 기본적으로 수도권지역에 대한 투자인데 광역자치단체간의 불필요한 유치경쟁을 피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와 중앙정부 등의 정책협의체를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운용하여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유치경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산업의 직접투자기업들은 임직원의 생활환경이나 인적자원 획득 면에서 유리한 수도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의 직접투자 유치가 수도권규제정책과 상충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와 같이 정책이 상충하는 경우 이의 조정과 정책우선순위의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나. 기여도를 높이는 정책방향

외국인직접투자는 국민경제에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끼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외국인직접투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부정적 효과가 아직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M&A 및 구조조정과정에서 기업의 혈값 매각 등 문제점이 간헐적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한

후에도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무조건적인 투자 유치가 아니라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 UNCTAD(1999)도 투자 유치국과 직접투자기업의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며 이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직접투자기업의 국민경제기여도를 높이는 추가적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1) 진입장벽 등의 규제완화와 연계

서비스산업에 대한 직접투자 유치정책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산업정책의 범주 안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서비스의 교역성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서비스산업은 기본적으로 내수시장접근형 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직접투자 유치를 서비스산업의 진입장벽 등 규제완화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정부의 진입규제와 이익집단의 진입규제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조업과 농수산업은 산출물의 교역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대외경쟁에 상당한 정도로 노출되어 있다. 그에 따라 이익집단의 지대추구행위가 광범위하게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 이에 반해서 서비스산업에서는 서비스공급자들이 각종 이익단체를 결성하여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 시행되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자면 교육 및 의료부문 등에서 진입장벽을 높게 유지하여 국내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는 데 외국인직접투자의 개방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경쟁국 정부와의 정책포럼 등을 통한 정책조화

국내의 서비스투자는 기본적으로 수도권지역에 대한 투자이다. 서비스

산업의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광역자치단체간의 경쟁은 투자 유치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지나친 인센티브 제공 및 중복된 투자 유치노력 등의 부작용도 초래한다. 따라서 지나친 유치경쟁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공식적, 비공식적 협의체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경쟁지역과의 정책협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시아의 중국, 홍콩지역은 직접투자가 활발하게 유입되고 있다. 이 지역들과의 직접투자 유치경쟁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호 보완적인 투자도 가능하다. 즉 이 지역들에 투자한 기업들의 연구개발, 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서비스 관련 업종의 직접투자가 우리나라에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투자 유치 관련 정책당국자 포럼 운영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3) 투자자 관리 강화

현재 외국인투자 유입의 상당 부분은 이미 진출한 기업의 증액투자이다.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의 신규 유치와 더불어 이미 투자한 기업의 관리와 증액투자 유도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투자국의 주한 외국인상공인단체를 투자환경 개선 및 투자유치정책의 홍보파트너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대부분 기존 투자자이며 동시에 잠재적 투자자이므로 이들의 애로 및 요구사항을 잘 파악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내기업의 역차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다. 서비스산업 타기팅

서비스산업의 투자 유치에는 전략적 접근이 가능하다. 즉 정부가 산업

의 장기발전 혹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여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산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유치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투자국, 투자기업, 투자지역 등의 구체적 목표를 정하고 잠재적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전략적 정책을 타기팅이라고 부른다. 이와 같은 타기팅을 통한 서비스산업의 투자 유치는 투자 유치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추세이며 제조업과의 연관관계도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타기팅을 통한 투자 유치로 서비스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국내 관련 제도의 투명화를 이룰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세계적 추세가 서비스산업 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의 동기가 생산요소의 우위(저렴한 임금)를 겨냥한 제조업 직접투자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수시장을 겨냥한 직접투자의 성격이 점점 더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투자 유치활동은 서비스산업 쪽으로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타기팅의 대상은 유치정책담당부서, 유치지역, 유치대상산업, 잠재적 투자국 등의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다. 유치지역은 현실적으로 서비스의 직접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수도권지역으로 압축된다. 서비스산업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위치는 기본적으로 수도권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수도권지역 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의 보다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유치대상 서비스산업은 정책목표를 반영하여 제조업과의 연관관계가 높은 산업, 직접투자 증가율이 높은 산업, 고용흡수력이 높은 산업, 유치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산업 등으로 요약된다. 이상의 논의결과를 <표 4-12>로 요약할 수 있다. <표 4-12>의 내용 중 유치대상산업 및 투자국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세계 직접투자 증가율이 높은 산업은 운수창고통신 및 비즈니스서비스 등이다. 우리나라의 직접투자 유입 증가율이 높은 산업은 2000년 말~2003년 말 기준으로 운수창고(66.9%), 통신(62.0%) 금융보험(64.4%), 부동산·

임대(102.7%), 문화·오락(151.3%) 등이다. 도소매(26.2%) 및 음식숙박(37.7%)은 전체 평균 41.8%에 못미쳤다.

표 4-12. 서비스산업 타기팅 기준

유치정책 당사자	중앙정부 및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유치지역	수도권 및 인근지역
유치대상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직접투자 증가율이 높은 산업 ◦ 우리나라 직접투자 증가율이 높은 산업 ◦ 제조업과의 연관관계가 높은 산업 ◦ 고용창출효과 높은 산업 ◦ 외국인직접투자 유치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산업 - 예: 의료, 교육서비스
투자국	◦ 주요 기존 투자국(미국, 일본, EU(네덜란드)) 및 잠재적 투자국(아시아, 홍콩 등)

서비스산업의 증가율은 기간 중 55.8%로서 전체 증가율 41.8%를 웃돌았다. 제조업과의 연관관계가 높은 서비스산업은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산업으로 비교우위의 축이 옮겨가는 과정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디자인, 금융, 보험, 회계, 법률, 경영컨설팅 등의 다양한 생산자서비스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은 금융 및 보험, 도소매, 음식·숙박, 교육 및 연구 등이다. 투자 유치대상국으로는 미국, 일본 및 EU(네덜란드)로 압축된다.

제5장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한 서비스산업에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2장은 우리나라 경제의 서비스화 정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평가하였다. 우리나라 경제의 서비스화가 고용, GDP 비중 등에서 진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연관관계도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보았다. 향후 상당 기간 지속될 서비스화와 관련하여 경제의 서비스화가 제조업의 공동화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투입요소로서 서비스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하며,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크게 높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서비스산업의 고용흡수능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서비스 시장개방과 서비스 직접투자의 증대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계기로 활용하고 불필요한 규제 등을 해소해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3장은 외국인직접투자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2000년대 들어 다소 주춤하던 직접투자가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산업별 구성, 투자국별 구성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4장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방안을 살펴보았다. 먼저 세부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요인을 분석하여 파악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를 요인별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직접투자 유입은 세계보다 두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이용하고 기존 정책을 평가하여 향후 외국인직접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타기팅 대상으로서 정책당사자, 유치지역, 유치대상산업, 투자국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바, 향후 서비스산업 직접투자 유치는 이와 같은 고려요소의 공통분모를 최대한 많이 가지고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문자료]

- 강재형·이상학·정기웅. 2002. 4. 「벤처기업간 연구개발경합에 대한 연구」. 『벤처 경영연구』, 5권 1호. pp. 91~107.
- 박시룡. 2000. 1. 『외국인직접투자- 패턴변화와 유치촉진방안』.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연구총서 2000-85.
- 박진수. 2004.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의 현황과 과제』. 산업연구원.
- 배광선 외. 2000. 4. 『벤처기업의 발전전략』.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00-14.
- 산업자원부·산업연구원. 2003. 10. 『차세대성장동력』.
-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각종 통계.
- 산업연구원. 2004. 7. 30. 「서비스경제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산업경제정보』. 216호.
- 연태훈. 2003. 12. 『외국인직접투자의 산업간 생산성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2003-05.
- 오상봉·김인중 외. 1999. 8. 『지식기반산업의 발전전략』. 산업연구원 21세기 준비 연구보고서 99-03.
- 오준병. 2004. 7. 「한국경제 산업구조 변화요인 분석」. 『월간 KIET 산업경제』, 33-42.
- 옥규성 외. 1997. 『한국무역론』. 두남출판사.
- 유진수. 1991. 8.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변화와 생산성의 국제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91-13.
- 이건우. 2003. 10. 『서비스산업 성장부진의 원인과 정책시사점』. 산업연구원.
- 이상학. 1993. 1. 『서비스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대한상공회의소.
- 이상훈. 1998 『경기도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경기개발연구원.
- 장윤중·전주성. 2000. 5. 『글로벌경제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 산업연구원 21세기 준비 연구보고서 시리즈 2000-20.
- 장윤중 외. 2001. 6. 『외국인직접투자의 일석오조효과』. 산업연구원 보고서.
- 중소기업청·산업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 2003. 12. 『도전과 혁신 도약의 길』.
- 차미숙·정윤희. 2002. 12.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형별 입지특성과 지역연계 연구』. 국토연구원 연구자료 2002-21.

- 최창규. 2004. 「국별 외국인직접투자의 결정요인 분석」. 『국제경제연구』, 10권 1호, 49-68.
- 최창규·이명훈. 2004. 8. 31. 『주요국의 직접투자분석과 우리나라의 유치방안』. 산업자원부 정책과제 보고서.
- 통계청 홈페이지(www.kosis.nso.go.kr).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각호.
- _____. 『국민계정』 각호.
- Invest KOREA 홈페이지(www.investkorea.org).

[외국문자료]

- W. Baer and L. Samuelson. 1981. "Toward a Service-Oriented Growth Strategies." *World Development*. (June)
- Borenstein, E., J. de Gregorio, and J. Lee. 1995. "How does Foreign Direct Investment Affect Economic Growth?" NBER Working Paper No. 5057.
- OECD. Homepage 각종 통계.
- S. Park and K. S. Chan. 1989. "Cross-country Input-Output Analysis of Intersectoral Relationships between Manufacturing and Services and their Employment Implications." *World Development* 17 (2).
- UNCTAD. 1999, 2003, 2004. *World Investment Report*.

Executive Summary

Strategies for Promoting FDI Inflows in Services

Sanghack Lee

The purpose of this monograph is to find out strategies for promo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hereafter) inflows into Korea in service industries. The monograph comprises three core chapters.

Chapter 2 overviews the role of service industries in the Korean economy. It is shown that share of services in GDP and employment, respectively, tends to increase since 1990s. Moreover, the linkage between services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has been intensified.

Chapter 3 reviews the trend and composition of FDI in the world and in Korea as well. While her potential in FDI absorption is substantial, Korea has shown relatively poor performance in FDI inflows. The structure of FDI in Korea has shifted towards services.

By modifying the Constant Market Share analysis, Chapter 4 develops a simple model that can decompose the change in FDI stocks of Korea into three parts: world trend effect, industry composition effect and country effect. It is found that FDI stock of Korea has grown faster than that of the world. This is mainly because the FDI stock of Korea was initially in the low level, however. Chapter 4 then proceeds to review the policy packages for promotion of FDI inflows by the Korean government. Chapter 4 concludes by offering several criteria for targeting service industries for promotion of FDI inflows.

李相學

미국 뉴욕주립대(버팔로) 경제학 박사

국민대학교 경제학부(국제통상 전공) 교수(現, E-mail: slee@kookmin.ac.kr)

著書 및 論文

“Rent dissipation and social benefit in regulated entry contests”(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004)

“Strategic groups and rent dissipation”(Economic Inquiry, 2001) 외

정책연구 04-18

외국인투자 유치: 서비스산업에서의
전략적 외국인투자 유치방안

2004년 12월 24일 인쇄

2004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安忠榮

對外經濟政策研究院

발행처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전화: 3460-1178, 1179 FAX: 3460-1144

인쇄 (주)예원기획 전화 745-8090 대표 강대원

등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本書 內容의 無斷 轉載·複製를 금함】

ISBN 89-322-1216-3 94320
89-322-1072-1(세트)

정가 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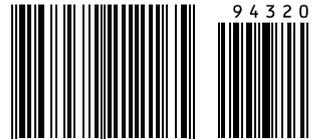
Strategies for Promoting FDI Inflows in Services

Sanghack Lee

본 보고서는 서비스산업에서의 전략적 외국인투자 유치방안에 대하여 연구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경제의 서비스화 정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평가한다. 우리나라경제의 서비스화가 고용, GDP 비중 등에서 진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연관관계도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제3장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역할과 동향을 분석한다. 우리나라는 직접투자의 잠재력은 크지만 상대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제4장에서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방안을 살펴본다. 서비스산업의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타기팅 대상으로서 정책당사자, 유치지역, 유치대상산업, 투자국 등에 대한내용을 살펴본다. 향후 서비스산업 직접투자 유치는 이와 같은 고려요소의 공통분모를 최대한 많이 가지고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TEL: 3460-1178, 1179 FAX: 3460-1144



9 798932 421216 5
ISBN 89-322-1216-3

89-322-1072-1 (세트)

정가 5,000원